| 봉축 수상 |

부처님오신날, 축원 올립니다



진명 스님
前 조계종 문화부장



한국사회, 각종 문제 · 갈등 '얼룩'
일자리 못 구한 청년 100만 명
정치 혼란, 국제 정세 악화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여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게 희망을 기원한다
밝고 광명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세상은 온통 연초록이다. 여린 잎새가 바람결에 일렁인다. 싱그러운 연둣빛에 눈이 부시고 마음은 평온하다. 대선정국에 있는 복잡한 세상의 일과는 무관하게 바람은 일렁이고 봄 햇살은 눈부시다.

얼마 전 지나가던 불자가 큰 길에 연등이 달려서 둘러보니 사찰 안내판이 있어 참배하러 왔노라고 했다. 도량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자연스레 인사를 하게 되었다. 잔디밭에 서서 대화를 하던 중에 "스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냐"며 "30년 이상을 한 업종에 종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고 답답하다"며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일도 어긋나고 그저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자는 듯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고,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것이 두렵다고 고단한 심경을 털어 놓았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심경을 가진 사람이 한 둘이겠는가.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중 청년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 청년층 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라고 하는데, 특히 올 1분기(2017년 1~3월) 중 대졸 이상 학력의 청년 실업자 수는 최초로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런 경제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영세업자들은 유지하며 살아내는 것이 용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 파란지붕 아래 주인이 되고자 대선 후보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친다. 그 외침은 감동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전국 하늘을 떠돌고 있다. 아마도 대선주자들의 토론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내쉬는 한숨은 지하를 뚫고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

과연 저 사람들 관심 안에 진정으로 국민들이 안중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명쾌한 정책 대결이 없는 토론이며, 질문은 어디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되풀이 하는 태도며, 젊은 날의 허물은 허물이 아닌 것처럼 뻔뻔하기 그지없는 변명에 능청스런 태도는 분명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로 보였다. 한탄스럽기 그지없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공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미 파란 지붕의 집은 주인을 잃었고, 가까운 북쪽에서는 철없는 아이가 불꽃놀이 하듯 미사일을 들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극에 달하게 하고 있으며, 가까운데다 덩치까지 큰 나라 중국은 그 발전의 속도가 가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처럼 날로 심화되는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문제들, 청년 실업 문제며 심각한 국가 경제문제, 북한을 포함한 외교문제 등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은 이제 옛 말인 것 같다. 오히려 난세에 국민이 현자가 되어야 하는 시절이다. 한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포기할 수 있는 행위, 눈 가리고 아웅다웅하는 행위, 정신이 500년은 나간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 국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난국을 바로잡기 위해 마음의 눈을 밝게 뜨고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권좌에 앉은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며 무시하거나 군림하면 안 될 일이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권력이 국민을 길들여 왔다. 힘 있는 권좌는 부릴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길들여 왔음에도 모두 그것은 자기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법은 법을 아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으며, 법의 잣대와 돈의 힘은 힘없는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그러나 이제 대중들은 알게 되었다. 국민의 지혜로운 힘은 어리석은 나라님의 눈과 귀가 되어 오탁악세(五濁惡世)가 아닌 오청선세(五淸善世)가 되도록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권력에 비굴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일과 역할이 주어져도 당당할 수 있도록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주어진 자리에서 지켜야할 도덕성, 즉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법조인은 법조인답게,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그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역할에 걸맞게 살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뭉개고 앉아 비비적거리며 변명과 망어를 일삼는 자는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인과는 승속에 차별없이 이뤄진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부처님오신날에 더 큰 희망을 갖게 된다. 두 동강난 우리나라의 허리가 빠른 시간 안에 치유되기를 빌고, 두 갈래로 갈라져 상흔이 깊은 국민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가볍게 치유되기를 축원하며, 부디 국민들의 손이 정직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을 선택하여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이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가 밝은 광명이 비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 올린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직장 지원서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마련되어 삼포, N포 세대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마음 놓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2세를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나라, 지도에서 허리선이 사라진 우리나라, 한 나라의 땅덩어리 크기와 국민 머릿수나 경제의 힘보다 문화선진국 국민성이 존중받는 나라, 조금 더 성숙된 국민성으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용서하고 위로 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며 살 수 있는 나라,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이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각성과 더불어 그런 대통령과 정치인을 만들어 낸 주인공이 바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지난 과거의 허물에 매여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고 부처님께서 남겨 놓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키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법구경〉 中

社 說

불교, 미래 동력을 준비하자

요즘 사회 · 경제계의 화두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이다. 이미 간단한 사물인터넷 기술은 가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 · 법률업계에는 인공지능 '왓슨'이 도입됐다고 한다.

기존 인식이 근본부터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해 불교계는 '잰걸음'으로 쫓고 있다. 특히 불교학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교적 인식과 해석,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강좌와 세미나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노동 시간이 줄고 자신을 위한 시간들이 늘어나게 돼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문화와 치유 상담, 명상 등의 분야를 불교계가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젠 외부로 눈을 돌려보자. 청년 실업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50만 명에 달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취업은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국한된다. 창업하는 인재는 매우 드물다. 세계 500대 부자에 오른 한국 부자는 모두 상속자들이라는 점은 한국사회에서 창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보여준다.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가 되려면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경제 구조가 돼야 한다. 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불교의 혁신성, 다양성, 유연성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스타트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철학과 토양을 제공해준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올해 본지 봉축 특집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이다. 이들 주제를 선정한 것은 미래 불교의 발전 동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 변화를 준비하고 선도하길 바랐다. 도전이 없으면 실패가 없고,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어야 성공과 변화가 있다. 한국불교는 도전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별없는 세상, 나부터 실천을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이다. 화창한 날씨 속에 형형색색의 연등이 사찰마다 걸리고,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법요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특히 4월 29일에는 세계 곳곳에서 모인 30만 명이 연등회에 참여해 한 마음으로 어울렸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자비와 대지혜를 이루려는 듯 거리 곳곳마다 사람들의 표정은 환하게 피어났다.

2600여 년 전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셨다. 바로 이 땅 모든 존재의 존귀함, 평등함을 선언하신 것이다.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국과 국내외 위기상황 속에서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불국토를 이루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불교의 시작이 그렇기에 불교는 사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또한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우리 주변부터 돌아보자. 단순히 피부색이 다르고, 또 취향이, 국적이, 심지어 성별이 다르다고 하여 혹시 차별하는 일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하여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은 없는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동체대비는 곧 이 땅의 평화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자비심을 베풀고 공양하자는 가르침을 내렸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족과 이웃, 나라와 세계 간 평화를 추구하고, 인종과 국적,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바로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런 차별없는 생각을 실천하는 이가 바로 이 시대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원명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설산

감찰원
감찰원장 석월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법주

포교원
포교원장 석도일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광

교육원
교육원장 석유심

교구종무원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충북종무원장 석초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지혜
총무부장 석화성
교무부장 석지담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지현(경주)
전국비구니총무 석우정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종단연합회회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사) 대승교단
대원불교조계종 불교대학
명리학, 성명학 수강생 모집
수년간 명리학, 성명학을 배우고도 아직 통변이 되지 않는 분은 확실하게 지도함
H·P 010-3711-5072
▷수시접수가능◁
교육원장 : 석유심 합장
총본산 인터넷 주소: http//cafe. daum .net/dw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